

일본의 동물병원 탐방기

백 영 기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ykipaik@hanmail.net



신축한 山根(Yamane)動物病院 개원 축하연에 참석하고



개원 기념 축하연과 야마네동물병원의 발자취

일본 돗토리현(鳥取縣) 구라요시시(倉吉市) 소재의 야마네(山根)동물병원은 지금부터 40년 전인 1970년에 山根義久(Yamane, Yoshihisa) 박사(일본수의사회장, 도쿄농공대학 명예교수)가 개설한 병원인데, 금년 3월에 구 병원 옆자리에 새로 신축 이전하여 준공 기념 축하연을 작년 5월 2일에 구라요시 센트파레스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초청장을 보내왔기에 축하 인사와 견학을 하고자 방문하였다.

야마네 동물병원은 신축 확장되면서 명칭이 구라요시(倉吉)동물진료센터 야마네동물병원으로 바뀌었다(사진 3). 이 동물진료센터의 高島一昭(Takashima, Kazuaki)원장은 야마네 박사의 사위인데, 수의학박사와 의학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일본소동물외과전문의(日本小動物外科専門醫)와 수의순환기인정의(獸醫循環器認定醫)의 자격을 취득한 매우 유능한 수의사이다.

구라요시에서 서쪽으로 50여 km 떨어져있는 인구 약 15만명의 요나고시(米子市)에는 1977년에 개설한 또 하나의 동물병원이 있는데, 이곳은 요나고동물의료센터(米子動物醫療센터)이고 원장인 山根剛(Yamane, Tsuyoshi)박사는 山根義久박사의 아들이다. 山根義久박사는 구라요시 동물의료센터와 요나고 동물의료센터의 회장 직함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2010년 5월 1일, 동행하게 된 로얄동물메디컬센터의 정인성 원장, 금란동물병원의 이상우 원장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오카야마(岡山)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8시의 늦은 시간인데, 야마네 박사가 손수 자동차를 몰고 마중 나왔다. 꼬불꼬불한 2차선 도로를 2시간 넘게 달려 구라요시(倉吉)의 식당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30분경 이었는데, 그때까지 많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93세의 五十嵐(Igarashi) 전 일본수의사회장을 비롯하여 本好(Motoyoshi) 일본수의축산대학 명예교수, 中間(Nakama) 야마구찌대학 명예교수, 手塚(Tezuka) 전 도쿄도(東京都)수의사회장 등, 일본수의학계의 원로들이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늦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식사 후, 병원 측에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여 숙박하고, 다음날 오전 11시 경에 축하연의 행사장인 센트파레스호텔로 이동하였다. 가장 앞쪽 중앙에 나의 명패가 붙어있는 귀빈석에 안내

■ 다녀왔습니다

되었다. 약 150명이 참석한 축하연은 12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 후, 야마네 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3명의 내빈 축사가 있었는데, 뜻밖에 첫 번째로 본인이 지명되어 당황하였으나 3~4분 정도의 간단한 축하인사를 하였다(사진 1).

공로자에게 감사장이 수여되고, 五十嵐(Igarashi) 전 일본수의사회장의 건배사에 이어 축하연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축하연이 진행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 개업 초창기부터 40년 동안의 사진 앨범이 상영되었는데, 한국의 수의사들과 교류를 시작한 후의 최근 6~7년 동안, 서울에서 촬영한 기념사진과 로얄동물병원과 교류협정 조인식 사진 등, 우리에게 반가운 기록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개업 초창기에는 낡은 임대주택의 단칸방에서 개원하여 대동물 진료를 위주로 부인의 내조를 받으면서 고군분투하는 야마네회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사진 1. 축하연에서 내빈 축사(필자)

인구 약 5만 명의 작은 도시, 구라요시(倉吉)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작은 진료실을 마련하여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주말에는 각지에서 개최되는 연구회, 학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임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였다. 개업 2년 후인 1972년에 철근 콘크리트 1층건물을 신축하고 1973년에 2층으로 증축하였다.

1977년에는 요나고시(米子市)에 요나고동물의료센터를 개원하였는데 소동물진료 증례가 증가하여 진료와 연구에 활력이 붙고 동물병원 스태프를 중심으로 합동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물임상의학회의 전신인 제1회 동물병원 임상연구그룹 연차대회(年次大會)가 1980년 11월, 돗토리시(鳥取市)에서 개최되었는데 지금은 일본 최대의 학회로 발전하여 매년 11월에 오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되며, 2009년에 제30회 동물임상의학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그때의 학회 참석자는 약 4,700명(수의사 약 2,000명, 동물간호사 약 700명, 수의과 대학생 및 간호학생 약 500명, 기타 기업관계자 약 1,500명)이었다. 동물임상의학회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사진 2. 신축병원 현관앞에서(왼쪽부터 이상우, 백영기, 야마네, 정인성 박사)

나리게 된 것은 1981년에 설립된 소동물임상 연구소의 주관으로 돗토리시(鳥取市)에서 개최된 제2회 동물병원임상연구그룹 연차대회 부터라 할 수 있다. 1983년 제4회 소동물임상연구회 연차대회부터는 개최장소를 오오사카시(大阪市)로 옮겼으며, 1991년에는 재단법인 돗토리현동물임상의학연구소(鳥取縣動物臨床醫學研究所)를 설립하여, 매년 11월에 동물임상의학회 연차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야마네(山根)회장은 1971년부터 오카야마대학(岡山大學)의학부에서 심장병을 연구하여 1979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5년에는 아자부대학(麻布大學)에서 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 소동물용 체외순환장치(인공심폐장치)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개의 개심수술(開心手術)을 성공시켰으며, 지금은 일본 소동물 심장외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

다. 1994년, 도쿄농공대학(東京農工大學) 수의외과학 교수로 초빙되어 2009년 정년퇴임하기까지 교육과 연구와 진료활동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업적과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아 2005년에 일본수의사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2007년에 재선, 2009년에 3선되어 지금도 의욕적으로 일본수의사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고도의료를 지향하는 교육, 연구, 임상의 3대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차관을 얻어 가와사키시(川崎市)에 2차진료기관인 일본동물고도의료(日本動物高度醫療)센터를 설립하는데 앞장섰고, 초대 원장, 회장을 역임하여 일본의 소동물 고도의료의 길을 열었다. 지금은 후임자에게 물려주었지만, 획기적인 구상으로 일본 최대, 최고급의 종합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지금도 일본 전국 2,000여 개의 연계동물병원(1차진료병원)의 소개에 의하여 14개 전문과목(순환기과, 호흡기과, 소화기과, 비뇨생식기과, 피부과, 종양과, 뇌신경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검사와, 카운슬링과)의 2차진료 만을 실시하고 있다. 야마네(山根)회장은 동물고도의료센터의 설립을 구상하여 주도한 후, 확고한 기반을 닦은 후에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2009년에 도쿄농공대학을 정년퇴임한 후에도 일본수의사회와 재단법인 돗토리현동물임상의학연구소(鳥取縣動物臨床醫學研究所) 및 구라요시(倉吉)동물의료센터의 일을 위하여 구라요시와 도쿄를 왕래하면서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야마네동물병원의 구조와 시설

그동안에 사용하던 야마네동물병원은 재단법인 동물임상의학연구소로 확장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넓은 부지에 새로 신축 이전하여 준공을 기념하고, 개원 40주년을 자축하는 축하연을 개최하는 자리에 야마네회장의 초청을 받고 방문하게 된 사연은 이미 기술하였다.

신축한 동물병원을 견학하면서 금후에 소동물병원을 신축하거나 개조하는 개업수의사에게 다소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여 다카시마원장의 양해와 협조를 받아 여기에 소개하고자한다.

신축한 동물병원을 견학하면서 금후에 소동물병원을 신축하거나 개조하는 개업수의사에게 다소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여 다카시마원장의 양해와 협조를 받아 여기에 소개하고자한다.

야마네동물병원은 매우 넓고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3층 건물이었다. 진료시설은 2층까지만 사용하고 지붕 밑의 좁은 3층 공간은 창고와 도서실이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면적을 동선이 짧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진료 공간으로 설계되었고 병원 전체가 매우 밝고 시원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카시마(高島)원장에 의하면 직원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서로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대합실에 있는 보호자들도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대합실, 진료실, 처치실, 입원실, 수술실에는 유리를 사용하였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 동선을 짧게 하여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이었다. 1층 현관에서 들어가면 L자형으로 트인 제1대합실과 제2대합실이 있고, 양쪽 대합실 앞에는 접수대가 있어 사무원의 안내를 받게 된다 (사진 4).

제1대합실 앞쪽에는 제1, 제2, 제3진찰실과 약국이 있고, 제2대합실 앞쪽에는 제5, 6진찰실이 있다. 진찰실의 뒤쪽에는 매우 넓은

홀이 있는데 여기가 중앙검사실인 듯, 각종의 임상병리검사기기가 갖추어져 있으며, 넓은 검사대가 2대, 처치대가 3대 있어 모든 임상병리검사와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넓은 검사실에서는 5개의 진찰실, 약국, 의국, X선실, 심장초음파검사실, 처치실, 호텔사, 식사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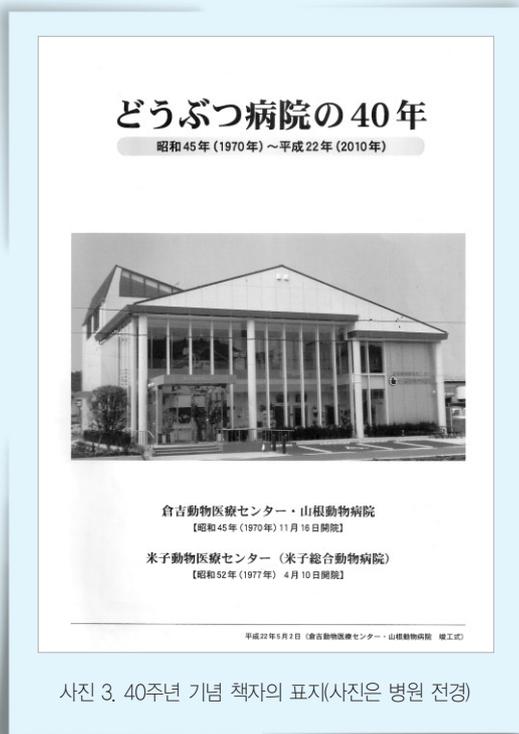


사진 3. 40주년 기념 책자의 표지(사진은 병원 전경)



사진 4. L자형의 접수대와 넓은 대합실
원내는 다카시마(高島)원장



사진 5. 중앙임상병리검사실



사진 6. 수술실



사진 7. CT실



사진 8. 체외순환장치(심폐장치)

개의 입원실, 고양이 입원실, 격리실, 야생 동물 진료실, 보호자와의 담화실(談話室), 영안실, 창고 등으로 바로 출입하게 되어 있으며 접수대와도 이어져 있어 사통팔달의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다(그림 1 참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2층에 올라가면 복도가 T자형으로 되어있는데 그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수술준비실이 있고 수술준비실을 거쳐 제1수술실과 제2수술실, 또는 CT실과 MRI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다. 제1수술실과 제2수술실은 남쪽에 있어 채광이 되도록 남쪽 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제1수술실보다 제2수술실이 넓다. 수술준비실로 들어가는 복도의 북쪽에는 탕비실(湯沸室), 화장실, 동물사, 창고 등이 있다. 복도와 마주치는 곳에는 회의실과 응접실로 사용되는 넓은 원장실이 있다. 원장실 옆(동쪽)에는 예비실과 재활훈련실(리허빌리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재활훈련실에는 아직 설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설비를 주문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그림 2).

진료용 기계, 기구 등의 진료설비로는 CT, 심장수술용 체외순환장치(심폐장치), Color doppler 초음파장치, 마취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모니터장치, 수술용 C-Arm 장치(DSA첨부), 혈관 sealing 장치, 수술용 드릴시스템, CR 장치, 전자내시경장치, 심전도, 안압측정기, 혈압계, 혈액화학장치, 혈구계산장치, 혈액가스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데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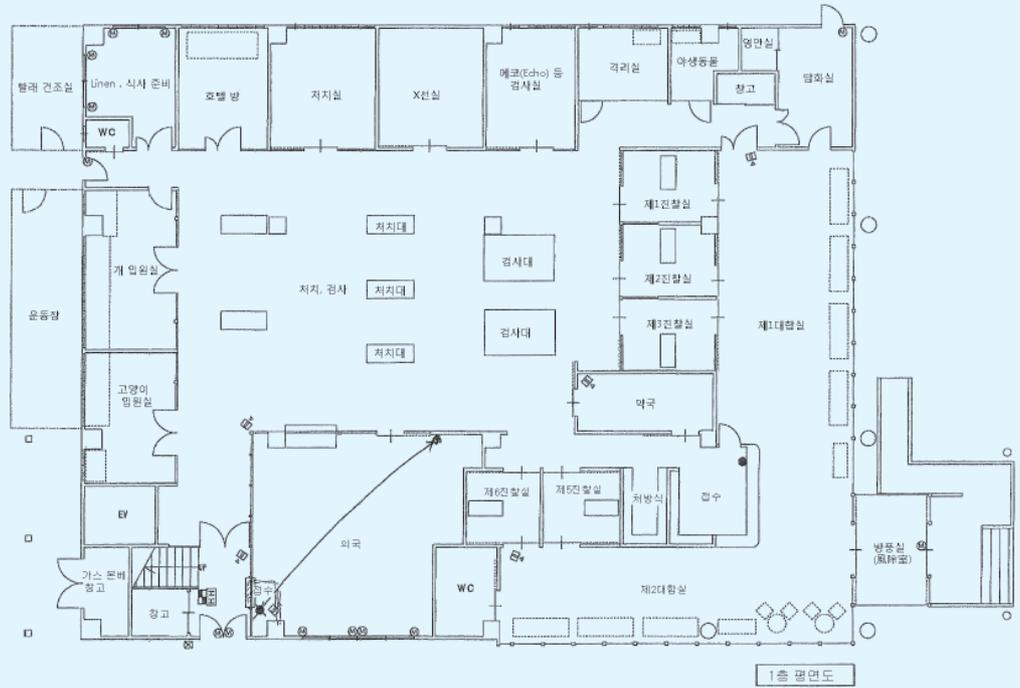


그림 1. 1층 평면도



그림 2. 2층 평면도